

'춘향제 정체성 확고' 소리 여정 호평

남원시, 소리의 고장·국악의 성지 특색 담아 매년 역대급 흥행 예상

남원시는 지난 6일 시민과 관광객들의 열띤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올 춘향제가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며, 단순한 볼거리 중심을 넘어 공간 구성과 현장 운영 면 등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어 앞으로 매년 역대급 흥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남원 춘향제는 지난해부터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분기점을 맞아 다양한 국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를 표방해 매년 주제를 설정하고 축제를 추진해 왔으며, 올 축제는 '소리' 등을 주제로 매년 축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한편 올해는 소리의 고장이자 국악의 성지로 손꼽히는 남원의 특색을 살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소리와 기술이 융합된 △한국의 소리 △세계의 소리 △융합의 소리를 메인테마로 100여 가지의 다양한 공연을 구성, 7일간의 소리 여정으로 꾸몄다.

특히 이번 춘향제는 시민 주도로 축제를 기획해 운영하고, 공간 운영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축제장은 관한투원과 시내 전역을 아우르는 넓은 범위에 걸쳐 조성된 바 관람 동선을 고려한 짜임새 있는 배치로 방문객의 이동과 체험이 한층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수유실, 쉼터, 그늘막 등 편의시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반응이다.

관한투원은 별도의 임시 구조물 없이 원형 그대로를 활용해 자연의 품 안에서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했고, 요천변 춘향?이도령 꽃동상 주변은 이번 춘향제의 랜드마크로서, 독창적인 포토존이자 여백의 미를 살린 명소로 부각되었다.

특히 올해는 4개 권역에 분산 배치된 푸드존은 관람객의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고, 더본코

리아와 협업한 F&B존은 무료 바비큐 제공 이벤트와 함께 약 6억 5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축제의 가능성을 실질적인 수치로 입증했다.

올 축제가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축제 전반에 걸친 청결한 환경 유지로, 행사 기간 내내 청소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정돈된 공간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관한투원 일대에는 4만여 개의 청사초롱이 은은히 밝혀진 것은 물론, 날마다 이어진 불꽃놀이가 남원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잊지 못할 장면을 남겼다는 후문이며, 관광객들은 SNS를 통해 "축기 전에 이런 축제를 볼 수 있어 행복하다, 살아생전에 꼭 한 번 봐야 할 축제"라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남원시 공보팀 나소정 팀장은 "제96회 춘향제를 계기로, 축제장의 구성과 운영이 시민과 관광객 중심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춘향제 준비 과정에서 올해의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해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별빛 아래 울려 퍼지는 감성의 선율

완주 봉동초, '별 헤는 밤, 정서 힐링콘서트·천체관측' 개최

완주 봉동초등학교(교장 장남덕)가 별빛과 음악,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밤을 준비했다.

9일 봉동초 대강당과 운동장에서 '별 헤는 밤, 정서 힐링콘서트와 천체관측'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별을 바라보고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정서 치유의 시간으로 꾸며진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유희태 완주군수, 전북지역 교육장, 도·군의원 등 지역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해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1부 '별 하나에 사랑'에서는 감미로운 음악회가 펼쳐진다. 소프라노 송난영, 바리톤 석상근, 트로트 가수 김성민이 무대에 올라 'O mio babbino caro', '아름다운 나라', '축배의 노래', '님과 함께'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선보이며 감동의 선율을 전한다.

2부 '별 하나에 추억'은 운동장에서 열리는 천체관측 시간이다. 참가자들은 망원경을 통해 달과 목성, 별자리를 직접 관찰하며 밤하늘의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나만의 별 찾기' 프로그램이 마련돼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완주 어린이 취타대의 합창 행진이 분위기를 돋우고, 캠프파이어가 따뜻한 이야기가 파스한

별빛을 밝혀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남덕 교장은 "별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음악을 통해 마음을 다독일 수 있길 바란다"며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교육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별빛 아래서 펼쳐지는 이번 힐링콘서트는 봄날의 특별한 밤의 소중한 추억이 되어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원주=염재복 기자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서 만나는 음악·이야기

백제역사유적지구 선율속으로·세계유산에서의 답소 진행

백제의 숨결이 깃든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이 예술과 이야기가 흐르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익산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을 배경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2025 백제역사유적지구 선율속으로'와 '세계유산에서의 답소'가 진행되며, 단순한 관람을 넘어 유산을 오감으로 향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돼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마련됐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선율속으로'는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 미륵사지 특설무대에서 첫 공연이 열린다. 토크쇼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소

프라노 김아라, 팬담싱어 출신 테너 송근혁 등이 출연해 창작곡과 영화 OST, 클래식 갈라공연으로 이뤄진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5월 31일에는 백제왕궁(왕궁리유적) 특설무대에서 두 번째 공연이 펼쳐진다. 테너 최진호, 소프라노 정하은, 가수 써니힐이 출연해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예술적 향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세계유산에서의 답소'는 대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명사를 초청해 시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지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10일 오후 3시 30분 미륵사지에서 영화평론가 전찬일을 초청해 첫 포문을 연다.

오는 31일 백제왕궁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세계유산에서의 답소는 영화 '서유기의 불'과 '비트'의 감독 김성수를 초청해 시민과의 만남



을 이어간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문화재단-한국전통문화고-전주대-전북대 업무협약

전주문화재단이 지역 내 차세대 문화예술 인재 육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8일 재단에 따르면 전주문화재단 최락기 대표이사와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조미경 교장, 전주대학교 김영신 문화융합대학 공연예술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이동훈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부교수 등 각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한벽문화관 세미나실에서 '2025 라이징스타 시리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미래 예술인을 발굴·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



계 구축과 정보 교류 등 연대 활동 △라이징스타 시리즈의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인턴십 운영 등 청년 고용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장은성 기자

부안청자박물관, 기획전시 '도자기 따라 민화 산책' 개최

부안청자박물관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전시동 1층에서 기획전시 '도자기 따라 민화 산책'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청자, 백자, 분청사기 등의 명품 도자기와 조선 후기 민화 책거리 병풍·액자를 칼라버레이션하여 한국 전통 예술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조선 후기 정조 임금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민화 책거리는 책을 보관하는 공간을 표현하며, 선비에게 꼭 필요한 서적, 문방사우(붓·벼루·종이·먹)와 함께 꽃, 새, 화분, 도자기, 향로 등 진귀하고 길상(吉祥)의 의미를 상징하는 다양한 기물이 그려져 있는 실용과 예술성을 겸비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가 담긴 그림이다.

한국의 전통 도자기와 조선 후기 민화 책거리 등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무늬는 길상과 부귀영화·다복·무명 장수·자손 번창·행운 등을 상징하며,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소망하는 바를 투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우리 곁에 은근히 끈기 있게 존재하는 오래된 것들은 단순히 구시대적 산물에 머무르지 않고 옛사람들의 정취와 염원이 서려 있는 살아있는 문화생명체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 마이스 아카데미 전문가 양성과정 개강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10월 '2025 전북 마이스 아카데미 재직자 과정'을 개강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마이스 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재직자 맞춤형 과정으로, 도내 관광 및 마이스(MICE)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실무 중심의 커리

클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10월, 17일, 31일 매주 토요일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강의는 건국대학교 글로벌MICE연계전공 서병로 교수가 맡는다.

이번 과정은 △2025 마이스 산업 트렌드와 인센티브 유지 전략 △지역특화 MICE 회의 발굴 및 성공사례 △국제회의의 유지 프로세스와 전략 등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정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